

중·노년기 부모 및 직업역할 재구조화와 심리적 안녕감: 일본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장 수 지*

경성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1) 자녀의 독립과 은퇴에 직면하는 중·노년기에 부모 및 직업역할의 비 중축소를 통한 역할 재구조화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2) 부모 및 직업역할 재구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역할 재구조화는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 정도로 측정하였으며, 일본의 기혼남녀 378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회수율 48.3%). 그 결과, 부모 및 직업역할에 집착할수록 그 역할에 대한 상실불안감이 증대되어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경로가 여성에게서 확인되었다. 역할집착의 개인차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자율성이 높고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며 사회적 지지망이 좁아질수록 직업역할에 집착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고 사회적 지지망이 좁아질수록 부모역할에 집착하였으며, 성역할태도가 비전통적일수록 직업역할에 집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노년기의 역할 재구조화의 중요성 및 성별 사회화 과정에 따른 역할 재구조화의 성차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역할 재구조화, 심리적 안녕감, 부모역할, 직업역할, 성차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장수지,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14-79
Tel: 051-663-4549, Email: sjchang@ks.ac.kr

역할(role)이란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정한 위치를 결정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에서 인정되는 포괄적인 행동유형이다.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학습하고, 그 역할에 대한 타인의 기대를 스스로 내면화시켜 사회적으로 공유된 규범과 기준을 채용한다(Newman & Newman, 1995). 인간관계의 속성에 따라, 혹은 속해있는 조직이나 직업에 따라서도 역할이 발생하여, 개개인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동시에 각기 다양한 역할을 갖게 된다. 이러한 역할들을 Erikson(1959)이나 Levinson(1978)과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전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역할의 상대적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rikson(1959)은 심리사회적 성격발달이론에서 인생주기의 각 단계를 하나의 도전과 위기로 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성격이 발달해 간다고 보았다. 가령 중년기에 들어서면 생산성(generativity) 대 침체성(stagnation)이라는 위기를 경험한다. 생산성이란 ‘자신의 내적 자원을 생성적 목적을 위해 끌어내며 후세대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미덕을 터득하는 것’으로(김애순, 2006),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직업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문화를 창조하는 등,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헌신하는 생산적 활동과 관련이 있다. 즉, 중년기에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부모와 직업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생산성 획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노년기 자아통합에 대한 준비가 무난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Levinson(1978) 역시 인생구조이론을 통해 생애주기를 몇 개의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가 가지는 상이한 발달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

이론에서는 특히 각 단계를 교차시켜 생애주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전환기(transition)의 존재가 강조된다. 전환기의 발달과제는 기존의 인생구조¹⁾에 의문을 던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다음 단계에서 살아갈 삶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과거로부터 포기할 것은 포기하여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년기까지 직업이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지만, 노년기로의 전환기에는 더 이상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아도 되는 역할들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신체적 쇠퇴에 대비하는 등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인생구조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는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전환기에 개인이 취해야 하는 규범적 태도에 대해서는 논하고 있지만, 역할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것이 초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주기 가운데 특히 중년기 후기부터 노년기 초기에 초점을 두고, 이 시기에 중년기 때 중시되던 역할들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재구조화함으로써 전환기 당시의 심리적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를 보다 의미 있는 시기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 개인이 갖는 다양한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역할이 부모역할, 직업역할이었지만, 노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1) 인생구조(life structure)는 Levinson의 인생구조이론의 핵심개념으로 특정 시기에서 개인 생활의 기초가 되는 유형이나 설계를 의미하며,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에 의해 구체화되는 발달적 토대를 뜻한다(정옥분, 2008).

자녀의 독립, 은퇴와 같은 생애사건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들 역할에 대한 몰입도를 점차 줄이고 새로운 인생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노년기 남녀의 부모 및 직업역할의 재구조화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역할 재구조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역할 재구조화라는 개념은 생애주기에서의 전환기에 이전 단계에서 중시되던 역할과 다음 단계에서 중시되는 역할 간의 비중을 조정하고 역할에 대한 의미부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 후에는 이전 단계에서 자신을 위해 투자하던 시간적, 물질적 투자를 상당 부분 자녀에게로 이전하게 되며, 개인 혹은 자녀, 친구로서의 역할보다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이때 이러한 역할비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 양육기의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재구조화는 개인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직업역할 재구조화를 중년기에서 노년기로의 전환기에 역할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 및 직업역할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역할 비중 전환이 필요한 50, 60대에도 여전히 부모 및 직업역할에 집착하는 경우 역할 재구조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연구 전반에 걸쳐 직업역할과 부모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젠더의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중·노년기 여성의 알코올 중독의 배경

으로 빈 둥지 증후군(empty-nest syndrome)의 존재가 지적되는 등, 자녀 독립 시기에 정체감 재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가 급속히 장기화되었지만 노년기 역할에 대한 역할기대나 규범적인 자아상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야 활발해진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중년기 역할에 대한 심리적 고착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岡本祐子, 松下美知子, 2004). 일본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와 같은 사회현상 및 논의들은 전환기 역할 재구조화가 중요하며 동시에 이 주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중·노년기의 발달과업 중, 자녀독립과 은퇴에 대한 적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녀의 독립에 대한 적응

자녀의 독립, 즉 양육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생애사건은 개인에게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중년기 후반에서 노년기 초반에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으로 인해 집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빈 둥지 시기는 많은 여성들에게 자녀양육기간 동안의 강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고 지금까지 못 했던 활동을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제공해 주어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접하게끔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로 가족중심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전통적인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성장, 독립해 감에 따라 자녀와의 유대감이 약화되어 상실감, 무기력함, 외로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Glenn, 1975). 이러한 여

성들은 어머니 역할을 여성 인생에서의 주된 역할로 인지하도록 사회화되어 평생을 그 역할에 몰입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빈 둥지 시기에 접어들면 그 역할을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녀독립 시기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문제는 주로 ‘중년기 위기’의 주요 테마로 다루어져 왔다. 중년기 위기란 중년기에 개인이 경험하는 발달상의 보편적인 위기로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와 같은 실존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수반되는 후회감, 실망감, 허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중년의 위기가 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으나, 다른 시기보다도 50대 전환기가 더욱 심각한 위기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Lowenthal, 1975; Neugarten, 1979). 이 시기에는 자녀들의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해방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정서적 분리로 인한 공허감을 느끼게 되며, 직업세계에서도 조기은퇴, 예기치 않은 정리해고 등의 불안요소들에 대해 긴장감을 느끼며 서서히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중년기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한 재평가와 역할에 대한 재적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개인이 중년기 위기감을 낮게 경험할까? 왕석순과 서병숙(1995)의 정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고(김명자, 1989; 김애순, 1993; 김애순, 윤진, 1993),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김명자, 1989; 신기영, 1991), 건강상태가 좋은 여성(김명자, 1989; 김애순, 윤진, 1993)의 중년기 위기 정도가 낮았다. 또한 전업주부보다는 취업여성들이 일과 가정 중 어느 한쪽에서 오는 상실감을 다른

쪽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일을 통해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녕감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김명자, 1989; 김애순, 윤진, 1993), 중년기 위기와 취업상태 간의 무관련성을 지지하는 결과도 존재한다(오명옥, 고효정, 박청자, 2000). 심리사회적 특징으로는 내외통제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개방성향, 성역할태도, 사회적 관계 등이 검토되었는데, 내적통제성이 높고(김현화, 조병은, 1992),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고인균, 1987),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김현순, 1994) 중년기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이은아, 2006). 중년기 적응과 정적 관련성이 있는 심리적 특성들을 보유한 개인들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심리적 상실감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일 없이, 오히려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 중년기 이후의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여 자신의 정체성 재확립에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가족, 친족, 친구 등의 친밀한 사회적지지망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사회봉사 단체와 여가활동 등 사회참가가 활발할수록 중년기 남녀의 위기감이 낮게 나타났다(신기영, 1991).

일본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종속적이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늦다(Iwao, 1993). 심지어는 기혼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나 개입도 그리 드문 현상이 아닐 정도로 자녀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시점이 늦어지므로, 자녀독립으로 인한 위기는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중년기 전환기만이 아닌, 50~60대에 걸쳐 찾아올 수 있다.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분리, 자녀독립으로 인한 역할상실의 문제를 다룬 일본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北村琴美와 無藤隆(2001, 2003)이 딸의 결혼 및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에 주목하여 어머니-딸 관계의 변화 및 발달을 연구한 결과, 딸의 결혼과 독립은 어머니의 상실감과 정신적 건강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전업주부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41~60세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의 독립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련을 검토한 清水紀子(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객관적으로 독립하는지의 여부보다 자녀독립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며, 자녀독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전업주부라도 자녀와의 정서적 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모색하며 주위 경험자들의 조언을 수용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자녀의 독립이 어머니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녀독립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대신 유사한 시기에 주로 남성들이 경험하는 은퇴문제에 더 많은 연구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Rubin(1979)에 따르면 여성이 자녀양육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정서적 투자가 많으므로 자녀독립에 따른 상실감과 단절감이 더 크게 나타나지만, 남성도 이 시기에 불균형한 감정을 경험하며, 단지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여성의 문제로만 간주되어 온 자녀독립기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남성을 대상으로도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부모자녀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임신과 출

산, 자녀양육기, 자녀독립기의 전 기간에 걸쳐 어머니가 겪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의 훈육태도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대부분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양성성(androgyny) 발달의 중요성 인식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자녀독립기의 아버지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 위기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안녕감이나 상실감, 우울 등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상태, 성역할태도,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망 등과 같은 변수들은 중년기에 적응적인 개인이 갖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 자녀독립 시기의 부모역할에 대한 태도, 역할변화에 대한 수용,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 독립에 직면하여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집착하여 역할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부모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중·노년기 남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부모역할 재구조화와 심리적 적응 간의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년기 위기 관련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성을 갖는 변수로 제시된 자율성(자아확립),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이 단순히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부모역할 재구조화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았다.

은퇴에 대한 적응

노년기에는 필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데(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은퇴는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해 온 주된 직업의 상실을 의미한다. 직업은 소득획득이라는 경제적 자원으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 가족 내 역할과 권위, 사회적 역할과 지위획득 등,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는 단순한 소득원의 상실이 아닌 심리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Peck(1968)은 은퇴문제를 포함하여 노년기 적응을 위해 극복해야 하는 심리적 발달단계에서의 세 가지 위기를 지적하였다. 그 세 가지 위기는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 신체초월 대 신체몰두, 자아초월 대 자아몰두이며, 이 위기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자신과 인생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은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기는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 몰두이다. 은퇴에 즈음하여 지금까지 몰두해 온 직업역할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역할상실에 대비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탐색하고 재구조화하여 이전의 인생에서 직업역할을 통해 지향해 왔던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관심사를 찾아 에너지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정옥분, 2008).

은퇴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데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은퇴자의 약 30%는 은퇴를 인생에서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고 하는데(Atchley, 1982), 이들은 소득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동시에 자아정체감 확인의 중요한 수단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에 몰입하고 집착한 결과 그 역할의 상실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처럼 은퇴에 따른 사회, 가정, 개인 능력 측면에서의 역할상실은 자아존중감의 손상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하여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박군석, 2009). 따라서 은퇴에 대한 성공적인 준비와 적응을 위해서는, 직업역할만이 아닌 인생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의 발견 및 전환이 필요하며, 스스로를 평가하고 인식하는데 있어서도 직업인으로서만이 아닌 복합적이고 분화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은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잃어지고 정신없이 보내던 직업생활로부터의 해방되어 새로운 활동과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한다. 기존 연구들로부터 은퇴 후 적응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은퇴 과정이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 적절한 은퇴준비와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은퇴 전 지위가 높은 경우, 은퇴 후에도 자율성과 내적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재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높은 통제감, 긍정적인 전망 등의 개인적 특성을 가진 경우, 호혜적이면서도 강력한 사회적지지망이 존재하는 경우에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Hooyman & Kiyak, 2008).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의 요인들이 은퇴 후 심리적 적응이 높은 개인들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직업역할에 대한 태도, 역할변화에 대한 수용, 그에 따른 정서

적 경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역할 재구조화와 심리적 적응 간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은퇴에 직면하는 시기에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은 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중·노년기 남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은퇴준비과정 및 은퇴 후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는 일(사회),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규범을 놓고 보았을 때, 직업세계는 남성적 성역할영역에 해당된다. 실제로 중·노년기 여성들은 청년기 때 취직 하더라도 결혼과 출산에 의해 일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은퇴를 경험할 만큼 직업생활을 지속해 온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은퇴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은퇴 후 남성들만큼 은퇴를 위기적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고 직업생활을 떠나 자연스럽게 주부역할로 되돌아온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역할규범에 의해 주부역할을 그들의 1차적 과업으로, 직업역할을 2차적 과업으로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장휘숙, 2002).

이와 같이 남성들은 생애 대부분을 외부의 직업적 역할에 치중하므로, 은퇴를 통한 사회적 역할상실의 문제는 자녀독립에 의한 부모 역할비중 감소에 비해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적, 노동지향적 산업사회의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직업에 쏟아 붓는 문화에서 생활한다(Matsumoto, 2002). 많은 일본 남성들은 법적 정년퇴직 연령인 만 65세에 이르기까지의 수십 년을 직업인 역할에 몰입하며, 이들에게 직업역할의 상실은 존재 의미의 상실,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의 저하와 같은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를 맞이하고 또 준비할 시기인 50~60대에 인생의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이나 역할비중전환을 통한 역할의 재구조화 없이 언제까지나 직업인 역할에 집착하는 것은 직업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부모역할과 마찬가지로 자율성,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이 중·노년기의 직업역할 재구조화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탐색하였다. 은퇴에 관한 연구 중 성역할태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의 경우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역할 중 직장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비중이 비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남성의 경우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은퇴 후 적응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는 자율성 및 사회적지지망(Hooyman & Kiyak, 2008) 역시 역할 재구조화를 통한 은퇴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다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노년기 전환기의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자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정년퇴직 후의 적응에 초점을 맞춰, 부모 및 직업역할의 재구조화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부모 및 직업역할 재구조화에서의 심리사회적인 개인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노년기 남녀의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 정도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둘째, 중·노년기

남녀의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역할상실불안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셋째, 개인의 자율성,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은 중·노년기 남녀의 부모 및 직업역할집착 정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가? 넷째, 이들 관계는 남녀 각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자

일본 동경도 S구에 거주하는 50~69세의 중·노년기²⁾ 기혼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mail surve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800명은 S구청의 선거인 명부로부터 2단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378명(남성 161명, 여성 217명)으로부터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48.3%).

2) 중년기는 대략 40~60세, 혹은 65세까지를 지칭하며(김애순, 2006), 노년기의 연령범위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UN의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학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노인집단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55~75세를 연소노인(young-old), 75세 이상을 고령노인(old-old)으로 구분하고 있으며(Neugarten, 1974), 최근 초고령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노인(oldest-old)을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 선정 시, 중년기 및 노년기 연령범위에 대해 정확한 연령적 구분을 짓기 보다는, 자녀의 독립 및 은퇴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는 생애주기 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춰 중년기 후기부터 노년기 초기인 50~60대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역할집착

역할 재구조화 정도는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기존 역할에 대한 집착 정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역할집착은 松山久美(2003)가 작성한 부모역할집착 2항목(예: 가능한 한 앞으로도 자녀를 내 생활의 중심에 두고 싶다)을 사용하였고,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두 항목 간 상관계수는 $r=.48$ 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직업역할집착 역시 4점 척도인 2항목(예: 가능한 한 앞으로도 일을 내 생활의 중심에 두고 싶다)으로 상관계수 $r=.72$ 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두 변수에 대해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에 대한 집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역할상실불안

부모역할상실불안은 松山久美(2003)가 작성한 부모역할상실불안 척도 2항목(예: 자녀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삶의 보람이 없어질 것이다), 직업역할상실불안 역시 松山久美에 의한 2항목(예: 일을 관두면 삶의 보람이 없어질 것이다)으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항목 간 상관계수는 각각 $r=.41$, $r=.50$ 이었으며, 부모 및 직업역할상실불안은 이들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두 변수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상실에 대한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은 4점 척도인 3항목(예: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으로 측정되었다. 이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 내적일치도 계수인 α 는 .61로 허용할 정도이

므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

자율성은 “외부로부터의 지배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절제하는 성질(新村出, 2008)”로 정의되며, 자율성의 측정은 青木邦子(1993)의 심리적 자립 척도로부터 3개 항목을 사용하였다(예: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편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으며,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72로 높았으므로 합산하였다.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는 남성, 여성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태도의 측정을 위해 평등주의적 성역할태도척도(鈴木淳子, 1991) 중 2항목(예: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한다)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다. 이들의 상관계수는 $r=.44$ 로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지지망은 사회적지지를 제공해 주는 사회적관계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만 매몰되지 않는 풍부한 사회적 관계 구축이 중·노년기 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Lubben의 축약형 사회적지지 관계망 척도(LSNS-6; Lubben, Blozik, Gillmann, Iliffe, Kruse, Beck, & Stuck, 2006) 중, 가족 외의 친구관계에 관한 3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예: 당신의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망이 풍부하며, 내적일치도 계수 α 는 .85로 합산하였다.

그 외 변수

연령, 학력수준, 취업형태, 경제적 여유, 총 자녀수, 기혼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5.0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수준, 취업형태, 총 자녀수 및 기혼 자녀수, 막내자녀 연령, 경제적 여유인지도의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고, 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어 부모 및 직업역할집착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효과 및 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고, 역할집착의 개인차 요인검토를 위해서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의 투입방법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없었으므로 입력방법(enter method)을 택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대상자는 50대보다 60대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전체의 80%에 가까운 대

상자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녀가 결혼한 경우는 60% 이상이며, 생애주기 상 막내자녀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16.4%에 불과하고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이미 자녀가 성인인 경우가 많아, 자녀양육 종료로 인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61(42.6%)	연령 평균 62.8세 (SD=5.8)	50대	127(33.6%)
	여성	217(57.4%)		60대	251(66.4%)
	합계	378(100.0%)		합계	378(100.0%)
학력수준	중졸이하	83(22.0%)	취업형태	회사간부	28(8.0%)
	고졸	216(57.1%)		회사원	40(11.4%)
	전문대졸	25(6.6%)		자영업	108(30.8%)
	대졸이상	43(11.4%)		전문직	7(2.0%)
	기타	5(1.3%)		공무원	11(3.1%)
총 자녀수 평균 2.26 (SD=1.43)	합계	378(100.0%)	시간제근무	51(14.5%)	
	1명	49(14.9%)	기타취업	13(3.7%)	
	2명	189(57.4%)	전업주부	53(15.1%)	
	3명	79(24.0%)	정년퇴직	36(10.3%)	
	4명 이상	12(3.6%)	무직	4(1.1%)	
기혼 자녀수 평균 1.00 (SD=0.98)	합계	329(100.0%)	합계	351(10.0%)	
	미혼	130(39.9%)	경제적 여유	여유 없음	50(13.4%)
	1명	92(28.2%)		그다지 여유 없음	58(15.5%)
	2명	80(24.5%)		보통	180(48.1%)
3명 이상	24(7.4%)	약간 여유 있음		63(16.8%)	
막내자녀의 연령	합계	326(100.0%)	여유 있음	23(6.1%)	
	18세 이하	52(16.4%)	합계	374(100.0%)	
	19~29세	139(43.7%)			
	30세 이상	127(39.9%)			
	합계	318(100.0%)			

주. 무응답에 따라 문항마다 사례수의 차이가 있음.

한 부모역할상실기의 심리적 적응을 검토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취업형태에서는 자영업의 비율이 30.8%로 다소 높게, 전업주부의 비율은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대상자들의 거주지인 S구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으로 전통 깊은 가게들

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

표 2. 남녀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						
(2)	.47(.45)	-					
(3)	.25(.11)	.10(-.11)	-				
(4)	.35(.15)	.29(.30)	.47(.39)	-			
(5)	-.05(-.11)	-.17(-.30)	.09(.09)	-.16(-.26)	-		
(6)	-.05(-.16)	-.21(-.23)	.19(.06)	-.16(-.29)	.49(.49)	-	
(7)	.04(.23)	.03(.17)	.24(-.19)	.27(-.06)	-.19(.11)	-.09(-.13)	-
(8)	.06(-.14)	-.15(-.34)	-.09(.08)	-.18(-.18)	.24(.33)	.18(.24)	.06(.05)

주. 괄호 안은 여성의 상관계수

(1) 부모역할집착 (2) 부모역할상실불안 (3) 직업역할집착 (4) 직업역할상실불안 (5) 심리적 안녕감 (6) 자율성 (7) 전통적 성역할태도 (8) 사회적지지망

표 3. 주요 변수들의 남녀 차이 검정(독립표본 t검정 결과)

	남성		여성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부모역할집착	3.51	1.29	3.56	1.37	-.27
(2) 부모역할상실불안	3.19	1.25	3.30	1.52	-.65
(3) 직업역할집착	5.76	1.86	5.21	1.89	2.36*
(4) 직업역할상실불안	5.16	1.84	4.55	1.74	2.76**
(5) 심리적 안녕감	8.95	1.80	8.90	1.95	.22
(6) 자율성	9.38	1.71	8.92	1.89	2.34*
(7) (전통적)성역할태도	4.83	1.83	4.40	1.89	2.08*
(8) 사회적지지망	8.36	2.14	9.76	2.24	-6.03***

*** $p < .001$, ** $p < .01$, * $p < .05$

계는 표 2와 같다.

표 3에서는 남녀별 부모/직업역할집착, 부모/직업역할상실불안감, 심리적 안녕감, 자율성, (전통적)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의 평균(표준편차)을 제시하였고,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평균치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t*검정 결과, 부모역할집착 및 부모역할상실불안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남녀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직업역할집착 및 직업역할상실불안 정도는 각각 여성보다 남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2.36, p<.05; t=2.76, p<.01$). 각 변수들의 범위가 2~8점인 것을 고려할 때, 부모역할집착, 부모역할상실불안은 남녀 모두 3점대로 대체로 높지 않게 나타나, 자녀독립에 의한 역할상실을 크게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역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차는 있었지만, 부모역할에 비해서는 남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집착과 역할상실불안 정도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안녕감에서의 남녀 차이는 없었으나, 자율성,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에서는 각각 유의미한 남녀차이가 나타나, 자율성과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남성이 높게, 사회적지지망은 여성이 더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t=2.34, p<.05; t=2.08, p<.05; t=-6.03, p<.001$).

부모역할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부모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 검토

부모역할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 각각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이 분석은 막내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는 분석에서 배제하고 자녀 모두가 성인이 되어 자녀독립기에 접

어든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model 1-1, 2-1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부모역할집착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부모역할집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그 외 학력, 연령, 취업상태(종일근무/시간제근무/무직은 더미변수³⁾), 경제적 여유를 통제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모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model 1-2, 1-3, 2-2, 2-3의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우선 model 1-2, 2-2에서는 독립변수인 부모역할집착과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 부모역할상실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model 1-3, 2-3에서는 독립변수에 부모역할상실불안을 추가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는 부모역할에 집착할수록 부모역할상실불안이 높았으나, 부모역할상실불안은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부모역할집착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부모역할상실불안이 부모역할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에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갖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인 sobel test⁴⁾를 실시하여 확인한

3) 北村琴美와 無藤隆(2001, 2003)의 연구에서 전업주부의 부모역할상실감이 더욱 크게 나타난 결과에 근거하여 취업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일본 중·노년층의 경우 시간제 노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일반 종일근무자들의 차이도 탐색하기 위해 무직/시간제/종일근무로 구분하였다.

4) Sobel test: $Z = \frac{ab}{\sqrt{b^2s_a^2 + a^2s_b^2}}$, (Sa: a경로계수의 표준오차, Sb: b경로계수의 표준오차)
 $Z > |\pm 2.58|$ 면 $p < .01$, $Z > |\pm 1.96|$ 면 $p < .05$

표 4. 부모역할집착, 부모역할상실불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효과

	남성(N=93)			여성(N=137)		
	model 1-1	model 1-2	model 1-3	model 2-1	model 2-2	model 2-3
	심리적 안녕감	부모역할 상실불안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부모역할 상실불안	심리적 안녕감
	β	β	β	β	β	β
부모역할집착	-.01	.45 ***	.04	-.11	.46 ***	-.03
부모역할상실불안			-.12			-.31 ***
학력	.12	-.19 †	.10	.09	.02	.10
연령	-.13	-.01	-.13	.08	-.07	.06
취업	종일근무	-.01	.03	-.01	-.16 †	-.06
	시간제근무	.03	-.01	.03	-.18 †	-.15
경제적 여유	.37 ***	-.00	.37 ***	.34 ***	-.14 †	.30 ***
F	3.10 **	5.20 ***	2.80 *	5.41 ***	7.65 ***	6.89 ***
R ²	.18	.26	.19	.20	.26	.27

주. 취업형태 중 무직자를 기준변수로 둠

*** $p < .001$, ** $p < .01$, * $p < .05$, † $p < .1$

결과 역시 sobel test 통계값이 -1.27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부모역할집착 자체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부모역할집착이 부모역할상실불안을 초래하기 쉬우며($\beta = .46, p < .001$), 이는 또한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beta = -.31, p < .001$) 경로가 제시되었다. sobel test 결과에서도 그 값이 -2.71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부모역할집착이 부모역할상실불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영향관계가 제시되었다. 한편 남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설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모형 model 1-3, 2-3은 남녀의 심리적 안녕감의 분산을 각각 19%, 27% 가량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함.

설명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일본의 중·노년기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자녀독립 시기에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역할비중을 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모역할상실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직업역할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직업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 검토

직업역할집착, 직업역할상실불안,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남녀 각각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이 분석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전업주

표 5. 직업역할집착, 직업역할상실불안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효과

	남성(N=104)			여성(N=117)		
	model 3-1	model 3-2	model 3-3	model 4 -1	model 4-2	model 4-3
	심리적 안녕감	직업역할 상실불안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직업역할 상실불안	심리적 안녕감
	β	β	β	β	β	β
직업역할집착	.11	.40 ***	.18	-.11	.32 ***	.17 †
직업역할상실불안			-.14			-.31 ***
학력	.14	-.07	.13	.09	-.04	.10
연령	-.11	.14	-.09	.08	.19 *	.07
취업_종일근무	-.19 †	.18 *	-.16	-.01	-.07	.14
경제적 여유	.26 **	-.10	.25 *	.34 ***	-.12	.33 ***
F	3.99 **	8.29 ***	3.62 **	6.21 ***	5.65 ***	7.98 ***
R ²	.17	.30	.18	.22	.20	.30

주. 취업형태 중 시간제근무자를 기준변수로 둠

*** $p < .001$, ** $p < .01$, * $p < .05$, † $p < .1$

부 포함)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직업역할집착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 파악을 위한 model 3-1, 4-1의 분석에서는 직업역할집착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통제변수로 학력, 연령, 경제적 여유와 함께 취업형태(종일근무/시간제근무는 더미변수)를 투입하였다. 또한 model 3-2, 3-3, 4-2, 4-3에서는 직업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이 실시되었다. model 3-2, 4-2에서는 직업역할집착을 독립변수, 직업역할상실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model 3-3, 4-3에서는 직업역할상실불안을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다중회귀분석을 남녀 각각에 대해 실시하고, 직업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직업역할집착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직업역할집착이 직업역할상실불안을 높이는 정적 관련성이 확인되었으나($\beta = .40, p < .001$), 이러한 불안감이 현재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효과를 갖지는 않았다.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sobel test 결과에서도 역시 sobel test 통계값이 -.24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직업역할집착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직업역할상실불안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beta = .32, p < .001$),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beta = -.31, p < .001$). sobel test 결과에서도 그 값이 -2.62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직업역할집착이 직업역할상

실불안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간접효과가 제시되었다. 직업역할 집착 및 직업역할상실불안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 model 3-3, 4-3은 남녀의 심리적 안녕감의 분산을 각각 18%, 30% 정도 설명하였다. 요약하면 직업역할에 집착할수록 직업역할상실불안이 높아 심리적 안녕감이 저하되는 경로는 여성에게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남성의 직업역할상실불안은 현재의 심리적 적응상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부모 및 직업역할집착의 개인차 요인 분석

위의 결과들로부터,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전 단계에서 중시되던 역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역할상실불안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정도가 높은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자율성,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과 역할집착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부모역할집착 요인 분석에서는 막내자녀가 성인연령에 닿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남녀 각각에 대해 자율성,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을 독립변수로, 학력, 연령, 취업형태(종일근무/시간제근무/무직은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상기의 변수들의 유의미한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태도, 즉 성별분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수록($\beta=.23, p<.05$), 사회적지지망이 줄어들수록($\beta=-.19, p<.05$) 부모역할

표 6. 부모역할집착 관련 요인

	남성 (N=92)	여성 (N=135)
	β	β
자율성	.01	-.06
전통적 성역할태도	.11	.23 *
사회적지지망	.00	-.19 *
학력	-.16	-.06
연령	.07	.02
취업	종일근무	.20 †
	시간제근무	.18
<i>F</i>	1.5 †	2.46 *
<i>R</i> ²	.10	.12

주. 취업형태 중 무직자를 기준변수로 둬.

** $p<.01$, * $p<.05$, † $p<.1$

에 대한 집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역할집착 요인 분석에서는 무직자를 배제하여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녀 각각에 대해 자율성, 성역할태도, 사회적지지망을 독립변수로, 학력, 연령, 취업형태(종일근무/시간제근무는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자율성이 높을수록($\beta=.23, p<.05$),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beta=.16, p<.05$), 사회적지지망이 줄어들수록($\beta=-.15, p<.1$), 연령이 높을수록($\beta=.34, p<.01$) 직업역할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비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beta=-.22, p<.05$), 연령이 높을수록($\beta=.32, p<.01$) 직업(일)에 집착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표 7. 직업역할집착 관련 요인

	남성 (N=105)	여성 (N=117)
	β	β
자율성	.23 *	.05
전통적 성역할태도	.16 *	-.22 *
사회적지지망	-.15 †	.06
학력	-.07	.03
연령	.36 **	.32 **
취업_종일근무	.01	.15
F	5.15 ***	4.45 ***
R ²	.24	.19

주. 취업형태 중 시간제근무자를 기준변수로 둠.
*** $p < .001$, ** $p < .01$, * $p < .05$, † $p < .1$

논 의

본 연구는 중·노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인 부모 및 직업역할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동시에 역할상실불안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또한 부모 및 직업역할집착 정도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의 중요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되므로, 연구 전반에 걸쳐 이들 관계에서의 성차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의를 덧붙였다.

첫째, 중·노년기 남녀의 부모역할집착→부모역할상실불안→심리적 안녕감의 경로는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

역할에 대한 집착은 부모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비해 역할비중의 축소가 요구되는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에 집착함으로써 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심리적 부적응감을 높일 것으로 보았고, 특히 남성과 여성 각각의 성역할규범에 일치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할 것으로 보았다. 부모역할은 관계성을 중시하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합치되며, 본 연구에서도 여성에게서만 그 경로의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자녀의 독립에 직면해서도 어머니 역할에 대한 강한 의미부여가 지속되어 역할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을 때,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로써 빈 등지 증후군의 메커니즘이 더욱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노년기 남녀의 직업역할집착→직업역할상실불안→심리적 안녕감의 경로 역시 여성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직업역할에 대한 집착은 직업역할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였다.

직업역할은 남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일치하므로, 남성의 경우 직업역할집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 경로의 유의미성이 더욱 기대되었으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해석할 때 남성 대상자의 취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자에는 자영업 종사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성의 40.8%가 자영업자이다. 애초에 정년퇴직을 앞둔 50~60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다른 직업에 비해 은퇴시기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직업역할은 성역할규범과는 상반되는 역할이지만 부모역할집착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생애주기에 걸친 일본 여성의 취업양상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M자형 곡선을 보인다. 자녀 양육기를 거쳐 노동시장에 뛰어들어 중년기 직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乙部由(2006)의 연구에 의하면, 40대까지는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50대는 부모보다는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노동의 이유 역시 가족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노년기 여성이 직업역할에 대해 갖는 애착이나 의미 부여는 기존의 입장, 즉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규범에 배반하는 직업역할에 대해서는 2차적인 과업으로 인지한다고 보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가족역할의 충실한 수행으로부터 구현되는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업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50대 이후 여성의 경우, 그 역할에 대한 상실불안감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부모역할집착 설명요인 검토 결과,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사회적 지지망이 좁을수록 부모역할에 집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위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심리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역할 재구조화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관계를 폭넓게 구축하지 못한 여성일

수록, 부모역할에 집착하여 역할의 재구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중년기 위기 연구에서의 이은아(2006), 신기영(1990)의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여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노년기의 성공적 적응을 위하여, 가족 이외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존재가치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등, 역할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업역할집착 설명요인 검토 결과, 남성은 자율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사회적지지망이 좁을수록 직업역할에 집착하는 정도가 강했으며, 여성의 경우 비전통적 성역할태도가 강할수록 직업역할집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직업역할집착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사회적지지망은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인관계가 주로 직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남성들은 다양한 관계형성을 통한 정서적, 정보적 자극에 노출되기 어려우므로 더욱 직업역할에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역할분담에 동의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전통적 성역할태도 역시 남성의 직업역할집착 정도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성의 역할을 직업영역으로만 귀결시켜 노년기 전환기 이후의 역할 재구조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적응뿐 아니라,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년기까지는 생산성이 강조되어 성별역할분담이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으나, 노년기에는 남편과 아내가 역할을 공유하고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노년기 부부관계 적응에 중요하기 때문이다(김태현, 2007). 또한

남성의 직업역할집착에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지니는 적으로 나타난 자율성은 확고한 자아확립의 달성이라는 개념적 요소로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의 자율성은 자아확립의 의미보다는 자기주장, 목표달성추구 등을 포함하는 남성성(masculinity)의 하위개념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한편 전통적 성역할태도는 여성의 부모역할 집착에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나, 여성의 직업역할집착과는 부적 관련성이 제시되어 두 타입의 여성군이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의 주요 역할인 부모, 직업역할에 대한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과거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아통합을 이루는 것이 노년기의 발달과제라고 볼 때, 그 두 여성 집단에서 나타나는 역할집착의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년기 위기는 여성의 경우 주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분리, 남성의 경우 은퇴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남성의 심리적 경험이나 여성이 겪는 은퇴시기에서의 심리적 경험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일본 사회에서 부모역할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적 역할로 의미 부여 되고 있지만, 직업역할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해 직업이 중·노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역할을 상실함으로써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저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즉 중·노년기 여성에게 직업역할이 부모역할에 비해 2차적 과업이 아닌 1차적 과업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은퇴준비 및 은퇴적응에 관련된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포함하

여 은퇴경험에서의 남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위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자녀의 독립과 은퇴라는 생애사건에 직면하는 중·노년기에는 부모 및 직업역할에 대한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 심리적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경로가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중·노년기 역할 재구조화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이다. 한국은 타선진국에 비해 부모자녀관계의 비독립성,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몰입, OECD국가들 중 가장 긴 노동시간(통계청, 2008) 등,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강한 사회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노년기를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구조화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과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역할집착 및 직업역할상실불안의 측정에 있어서, 설문의 설계상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측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사실상 은퇴 후의 적응과정을 포함하지 못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은퇴시기에 직면하는 50~69세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은퇴 이전부터의 역할 재구조화를 통해, 직업역할 이외에 지금까지 등한시해 온 역할(가족구성원, 취미활동인, 지역사회주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역할창조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심리적 적응에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은퇴를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역할 재구조화와 은퇴 후 적응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추출되었으나, 조사가 실시된 지역의 특성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제도적 은퇴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은퇴적응 연구로써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주의해야 하며,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인균 (1987). 중년여성의 자아개념과 우울증에 관한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 김애순 (1993). 중년기 위기감(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 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2), 1-14.
- 김애순, 윤진 (1993). 중년기 위기감(1):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김애순 (2006).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 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17-32.
- 김현순 (1994). 중년 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성향과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학위 논문.
- 김현화, 조병은 (1992). 성격 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207-228.
- 김태현 (2007). 노년학, 교문사.
- 박군석 (2009). 은퇴 노인의 주관안녕과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은퇴전 직종에 따른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2), 291-318.
- 신기영 (1991). 중년기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61-178.
- 오명옥, 고효정, 박청자 (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1), 17-31.
- 왕석순, 서병숙 (1995). 중년기 적응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 한국노년학, 15(1), 54-73.
- 이은아 (2006). 중년기 기혼남녀의 성역할 태도와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과학회지, 9(1), 25-42.
- 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여성학 강의. 학지사.
- 장휘숙 (2002). 여성심리학, 박영사.
- 정옥분 (2008). 성인노인심리학, 학지사.
- 통계청 (2008). OECD 국가지표.
- 青木邦子 (1993) 高齢化社會における女性(文化的土壌と幸福感) 自立概念の整理と自立性尺度の作成. 東京女子大學比較文化研究所紀要, 54, 79-122.
- 北村琴美, 無藤隆 (2001). 成人の娘の心理的適応と母娘關係: 娘の結婚出産というライフイベントに着目して. 發達心理學研究, 12, 46-57.
- 北村琴美, 無藤隆 (2003). 中年期女性が報告する娘との關係と心理的適応との關連, 心理學研究, 74, 9-18.
- 新村出 (2008). 廣辭苑.
- 新村出 編 (2008). 廣辭苑 第六版. 岩波書店.
- 鈴木淳子 (1991). 平等主義適性役割態度:SESRA (短縮版)の信賴性と妥当性の検討および日米女性の比較, 社會心理學研究, 6, 80-87.

- 松山久美 (2003). Identity確立と中高齡期における役割喪失感. 東京大學修士學位論文.
- 岡本祐子, 松下美知子 (2004). 女性のためのライフサイクル心理學. 福村出版.
- 乙部由子 (2006). 中高年女性のライフサイクルとパートタイム: スーパーで働く女たち. ミネルヴァ書房.
- 清水紀子 (2004). 中年期の女性におけるこの巢立ちとアイデンティティ. 發達心理學研究, 15, 52-64.
- Atchley, R. C. (1982). Adjustment to loss job at retirement.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8-164.
- Glenn, N. D. (1975).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postparental stage: Some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105-110.
- Hooyman, N. R. & Kiyak, H. A. (200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Allyn and Bacon.
- Iwao, S. (1993). *The Japanese Woman: Traditional Image and Changing Reality*, The Free Press.
- Levinson, D.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Liville, P. W. (1985). Self complexity and affective extremity: Don'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cognitive basket. *Social Cognition, 3*(1), 94-120.
- Liville, P. W. (1987). Self complexity as a cognitive buffer against stress-related ill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4), 663-676.
- Lowenthal, M., Thurnher, M., & Chiriboga, D. (1975). *Four stages of life*. San Francisco: Jossey-Bass.
- Lubben, J., Blozik, E., Gillmann, G., Iliffe S., Kruse, W., Beck, J. C., & Stuck, A. E. (2006). Performance of an Abbreviated Version of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 Among Three Europe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 Populations. *The Gerontologist, 46*(4), 503-513.
- Matsumoto, D. (2002). *The New Japan: Debunking seven cultural stereotypes*. Intercultural Press.
- Neugarten, B. L.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Sept., 187-198.
- Neugarten, B. L. (1979). Time, age, and the life cycle.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6*(7), 887-894.
- Newman, B. M., & Newman, P. 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A psychological approach (6th Ed.)*,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Inc.
- Peck, R. C. (1968).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B. L. Neugarten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ubin, L. B. (1979). Women of a certain age. N. Y.: Harper and Row.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논문투고일 : 2009. 9. 16
1 차심사일 : 2009. 10. 13
2 차심사일 : 2009. 12. 10
게재확정일 : 2010. 02. 19

Parental, Occupational Role Reconstru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 and Old Aged Japanese Married Men and Women

Sujie Chang

Kyungsoong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a)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occupational role reconstru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and old age, (b)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factors to affect parental/occupational roles reconstruction. The role reconstruction was measured as the extent to obsess with parental and occupational role in transition. Mail survey was conducted on 378 Japanese married men and women in ages between 50 and 69. As results, the hypothetical pathway was identified in women as follows. The obsession with parental and occupational roles raised parental and occupational role loss anxiety. And both of role loss anxiety lower psychological well-being. For men, obsessed with the occupational role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utonomy, gender role attitude, social support network. For women, gender role attitude significantly influenced on occupational and parental role obsess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s had significant impact on parental role obsession.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role reconstruction in middle and old age, gender difference in role reconstruction according to gender role socialization.

Key words : role reconstru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al role, occupational role, gender difference